

91년도 신입 보직교수 인터뷰

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 이광재 교수

실무업무에 타부서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데도 힘써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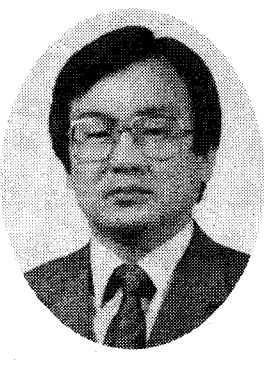
새로 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을 맡게 된 이광재(정경대·신방과) 교수의 첫마디이다.

기획관리실이 학교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관여하는 만큼 책임도 무겁다며 특히 새로이 보직을 맡고 시작한 등록금 협상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예산을 편성, 집행,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가장 큰 재원은 재단 전입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이겠지요. 그런 데 올해의 경우 불가인상, 인건비 인상등의 원인으로 많은 재정, 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비

1965년 본교 문리대학, 국문과를 졸업한 이광재 신입 기획관리실장은 본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지난 74년부터 6년간 신문방송국장을 역임하였고 1982년부터 88년까지 본교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 이광재 기획관리실장은 "교내전산망 구축, 교수연구년제확대, 대학홍보의 확대, 대학평가사업의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각 행정부서와의 깊은 의견교환을 통해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 의대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하양숙씨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광재교



“기획관리실은 본교의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

수원캠퍼스부총장 김봉걸 교수



“보직경력 9년이나 되었지만 갑자기 부총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어떻게 이 큰 살림을 꾸려 나갈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때가 55년이나 어느덧 35년이나 되었군요.

근지역 각 대학 및 산업체(삼성전자)와 연계해 전철유치를 위한 대외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학생,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전철유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기중에는 전철유치사업을 확충시킬 것입니다.

경희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학과 문제에 대한 견

“학교·학생간의 인화단결이 가장 중요”

해는 ▲중부학과 문제는 양캠퍼스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교류를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무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하나의 캠퍼스'라는 생각이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수공채문제와 교수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본교의 재정규모로 보아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등록금은 어느정도 인상되어야 하며 학생들과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교직원, 학생들간의 인화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김부총장은 “교직원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일몰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많은 서류와 학내 문제점들을 파악해나가고 처리하기 위해 손수 안전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경희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김부총장의 열의를 볼 수 있었다.

김부총장은 57년 본교에 화학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세대 학장,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치환 기자>

각 행정부서와의 의견 교환에 역점

라나 기존의 기획실 업무는 관리와 손실없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원칙하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재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비한 부분과

수업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통해 건강관리를 힘써, 취미로 바둑을 즐겨둔다.

<김기태 기자>

내실있고 알찬 대학원 만들 계획 다양

신문방송대학원장 이규종 교수

“지금까지는 초창기 설립에 관련된 사업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알찬 내실을 기할 때다 생각합니다”며 다부진 포부를 밝히는 신입 신문방송대학원장은 50명 선에 머물고 있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첫 목표라고 말한다.

이론과 실기를 조화롭게 겸비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해선 현장에서 뛰고있는 전문가를 과감히 교수로 초빙 강사진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커리큘럼의 조정할 것”이라며 이번 학기부터 “연극영화론” 등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전공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서두르겠다는 이교수는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개설, 논문집 발간, 우수학생선발 등에 총력을 경주할 방



침이며 또한 광고학과 등 첨단학과 등이 존재한 관계로 컴퓨터의 도입과 행정의 전산화등을 학교당국에 건의 적극 추진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한다.

그는 또한 선진국의 선진 제도나 국제 조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방학기간등을 이용 해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를 위해서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직장인이 많고 야간에 개설된 관계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조그만 대학원 휴게실을 마련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해 6월 거구에 어울리는 자상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수시특기 문제등 여러가지 소식이 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기존의 일관지도 어느정도 책임

문리대학장 서정범 교수

“어제가 무겁습니다. 연구실 지키고 학생들 가르치다가 문리대 학장직을 맡게되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상 최선을 다해 내실을 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입 문리대 학장 서정범(문리대·국문)교수는 첫 소감을 밝혔다.

앞서가는 대학이 되려면 구호보다는 실력을 닦아야 한다는 서정범은 “학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지적이고 실천하는 삶에 대해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교 국문과와 대학원을 나온 서정범은 “경희”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갖고있다.

서정범은 문리대의 재단문제에 대해 “문리대의 특수한 상황인 문·이학부의 괴리감을 없애줘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리대는 취업률 목적으로 하지않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공동의 장이기 때문 이죠.”라며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특히, 문리대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간 문제에 대해 서정범은 “문리대 내 강의실, 휴식 공간 부족 등의 전제적인 공간문제 또한 공대 수원 캠퍼스로 내려가면서 공대 공간을



이용하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기타 여러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침착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문리대의 발전은 우선 말은 과제인 공부에 전념해 외적인 성장에 앞서 집적인 향상을 가져와야 합니다. 문화세계 창조역역으로서 실력을 쌓아야겠지요.”라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덧붙이는 서정범은 학생들로서의 임무뿐 아니라 학문 연구에도 계속 전념하겠다고 한다.

현재 경희 대학이 연구소장으로 1만 5천원·전의 우리말의 근원을 찾아 그 연구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서정범은 특히 무속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오은희 기자>

학생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는 풍토 조성

사범대학장 송미섭 교수

“학생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자리인 만큼 많은 학생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는 풍토를 조성해 사범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중에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라고 사범대 학장에 임명된 송미섭(사대·교과)교수는 취임소감을 밝혔다.

본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송학장은 사범대교수들로 구성된 전국교사교육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본교 교육문화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원공개임용제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송학장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므로 대처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임용고시에 본교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강의의 강화와 화합 계획”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사대 6층에 사단인사를 동계방학 중 완성했으나 아직도 큰 난제인 공간확보 문제가 남아 있다며 나름대로의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영어교육과의 경우 어학실습실은 A.V 센터와 사대내 3층 강의실이 있으나 학생들은 시설미비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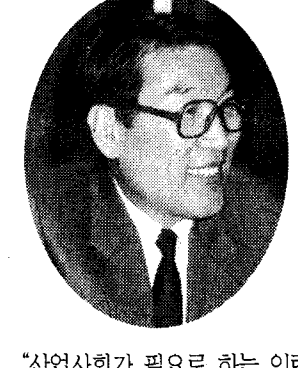
술교육과도 학회실이 없고 현재 사대 5.6층을 사용하고 있는 전시장도 열악한 상태라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송학장은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증축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 졸업정원제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컴퓨터 30여대를 설치할 계획과 사대 학생들의 교양을 위해 오는 94년 컴퓨터과목을 신설한 것등을 밝히는 송학장의 말에서 사범대 발전을 위한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송학장은 “사대 학생들이 무슨 생각과 고민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대의 고질적인 문제와 발전에 대하여 학생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홍준 기자>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목표



경영대학원장 김수곤 교수

노동조합원 등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기 위한 야간특수대학원이라고 설명하는 김원장은 “변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재충전과 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이요, 대학원 교육의 확대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교에선 아직 경영대학이 분리, 독립되지 않았지만 장차 생기기 될 경영대학을 위해서도 경영대학원이 갈라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많이 배출해 경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활신조를 가진 김원장은 오랫동안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산업

관계학(또는 노사관계론)’을 연구하다가 지난 84년부터 본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평화복지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원생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결강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지만 출석률이 오히려 좋은 편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는 김수곤 원장 스스로 평소 출석을 엄격히 통제한 것도 한 몫을 한다.

반면 학생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혼잡해진 학교내 교통, 주차사정을 염려하며 “지식교육보다 더 중요한 질서인식의 부재를 지적하고 싶네요. 생활속에서 비둘기 나다니는 배움은 의미가 없죠.”라고 말을 맺는 김원장에 게서 인자한 승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환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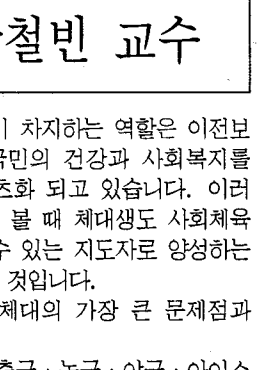
사회체육지도자 육성에 주력할 것

체대학장 박철빈 교수

김진호(체대·체육)교수의 후임으로 지난 1월8일 체육대학장에 임명된 박철빈(체대·체육)교수를 만나 보직발령에 대한 소감과 체대 전반의 문제·발전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새로 체육대학장을 맡게 된 소감은 ▲오래 전통을 가진 체육대학의 학장을 맡게 돼 매우 기쁩니다. 이런 전통을 세우는데 노력하신 전임학장들의 노고를 이어받아 또한 저도 체대발전과 체육대학생들의 복지문제 향상을 위해 재임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본교 체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체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우리대학의 체대는 타대학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체육에 대하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전보다 확대되어 국민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위한 레저스포츠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체대생도 사회체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교 체대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본교에는 축구·농구·야구·아이스하키·체조등 5개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에 비해 복지시설이 다소 부족한 형편이며 또한 과학적인 체육의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실험기자재와 운동공간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학교재정을 고려해 비용이 적게 드는 것부터 내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후의 체대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2천년대 새로운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어학이나 컴퓨터등 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스포터그들의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경희가 다시 도약할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현기 기자>

사회대학장 현종민 교수

간활동 계획하면서 등이다.

“사회대 발전계획 속에 현재 사회대의 문제들이 거의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부학과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 문제는 과의 명칭이 같더라도 교과과정상의 내용을 특화시켜 나간다면 별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원 캠퍼스의 조건은 열악하지만 발전가능성은 무한히 크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제 10여년 남짓되는 수원 캠퍼스의 조건을 열악하지만 발전가능성은 무한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대학이 되려면 교수들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노력과 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에 직원과 동문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학교발전이 주인과 객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같이 끝맺는 현종민 학장의 말에서 사회대의 발전에는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전체구성원의 힘이 필요함을 되새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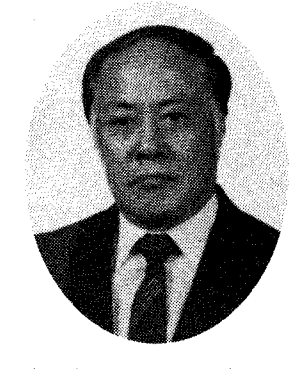
<송보영 기자>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투자해 주었다.

사회의 제반 모습들을 총괄해 내기 위한 학생들의 비판과 활동 등에 대해 유승희의 신입 학생처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며 학생지도의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유승희 신입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건부들은 다수의 일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행사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三思一行” 자세로 정치학의 산실 만들려



행정대학원장 이명식 교수

생각하는데 간략한 소개를 해본다.

▲행정대학원은 정치행정의 실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작게는 행정지도자를 길러내는 운영방식을 터득할 수 있게 합니다. 특수과정으로 지방의회 지도자를 양성하며, 이에 중소기업체 중역, 정당, 국회, 군인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학원에 다닌다고 있습니다.

▲교수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지게 된 신념이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두세번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꼭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전반적인 행정대학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대학원은 석사과정인원이 2백40명, 특수과정 30, 40명입니다. 이에 문교당국에 건의해 정원을 늘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원의 행정업무들을 전산화하고 커리큘럼을 개정해 산학협비의 대학원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물론 선진 국가와의 연계작용과 우리 동문과의 유대도 빠뜨리는 일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당부말과 개인적 소감이 있다면 ...

▲본교의 올해 슬로건처럼 미래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갈 자의 길을 개척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집대성해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명식 행정대학원장은 본교에서 학위를 받아 61년 본교 정인강사부터 출발하여 30년간 재직하면서 학생처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대학장을 역임하였다.

<이금주 기자>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유승희 교수



학교기관 중에 유일하게 학생회관에 위치하면서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학생처의

유승희 신입학생처장.

유승희(체대·체육)교수는 학생처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로 학교와 학생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학교측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 즉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등 학생들의 알찬 대학생활을 위해 지원·봉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자기직분에 충실할 것임을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학생처는

대외장학금 4천만원 확충계획

일반학생들도 학생회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그의 학생회사업에 대한 관심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본교에서도 졸업생들의 취업이나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유승희 학생처장은 취업대책으로 정보·자료수집, 기업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본교 학생들이 다수 취직해진 어학 강사개설(학

생회관 1층에 ‘취업정보자료센터’ 설치등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신입 학생처장은 본교 체육과 동문으로 한국체육대학

학장, 대한 체육회 이사등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특히 체육의 과학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유교수는 “학생복지회관 기금조성, 90년도에 5억이었던 대외장학금들 중에는 4천만원이 확충된 5억4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교수 직원 학생 동창회로 구성되는 대학발전추진위원회의 건설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펼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조진성 기자>